



# 미세한 건반 터치 감지 ... 아날로그 못지않은 음향

디지털피아노의 핵심은 얼마나 '아날로그' 같은 제품을 제작하느냐에 있다. 차지하는 공간이 적고 저렴한 디지털피아노를 찾는 소비자도 소리만큼은 어쿠스틱에 가까운 풍부한 음질을 원한다. 국내 디지털피아노 1위 업체 다이나톤의 이진영 대표는 디지털피아노 DPR3160K를 소개하며 "어쿠스틱피아노와 비교해도 음질 등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작년 10월 출시 이후 다이나톤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어쿠스틱피아노의 건반과 음향 재현  
디지털피아노의 음질은 건반기술과 음향기술에 좌우된다. 건반은 연주자의 감성을 미세하게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DPR3160K 건반에는 터치센서가 세 개 달려 있다. 이 대표는 "건반에 센서가 한 개 달려있는 일반 제품과 비교했을 때 빠르게 건반을 튕기듯 치는 연주, 미세하게 강약을 조절하는 연주, 건반을 문지르듯 치는 연주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건반을 통해 입력된 신호에 공명음을 더해 풍부한 소리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주목됐다. 건반을 누르면 해당 음만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현이 울릴 때 발생하는 현공명음, 피아노 내부에서 발생하는 해머사운드 등이 함께 출력된다. 이 대표는 "부드럽고 풍성한 소리를 위해 공명음을 디지털 음향화했다"고 말했다. 다이나톤은 2003년 국내 최초로 전자악기 개발 부설 연구소를 설립해 기술력을 확보해왔다.



이진영 다이나톤 대표가 차별화된 건반 및 음향기술이 특징인 디지털피아노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조아란 기자

건반에 3개 터치센서 장치 문지르는 듯 치는 연주 가능 공명음 더해 풍부한 소리 출력

2012년 세계 첫 렌털서비스 중국 진출로 제2 도약 준비

◆"시장성 일찍부터 알아봐"  
이 대표는 디지털피아노의 시장성을 일찍부터 알아봤다. 다이나톤은 1987년 반도체기업 한국전자의 전자기기부서로 출발했다가 2000년 분사됐다. 당시 한국 전자 전자악기 영업담당이던 그가 인수해 회사를 이끌어왔다. 이 대표는 "음악 작업을 하는 20~30대 청년층, 치매 예방

을 위해 음악을 배우는 노년층 등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악기가 피아노라고 생각했다"며 "가격과 무게 등의 측면에서 어쿠스틱피아노보다 디지털피아노가 편의성이 높아 성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디지털피아노는 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가정용으로도 제격이었다. 분사 전 LG전자의 전자악기부서를 인수했을 정도로 기술력도 쌓여 있었다.  
이 대표는 제품 판매 전략 쪽에서도 수완을 발휘했다. 2012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피아노 렌털서비스를 시작해 국내 최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DPR3160K도 피아노 렌털을 원하는 소비자 입맛에 특화해 제작했다. 이 제품은 39개월을 기준으로 월 3만1900원에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jkim@hankyung.com)로 신청 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11월의 으뜸중기 제품 △아지랑이-분유용 온도 유지 보온병 △다이나톤-디지털피아노 'DPR3160K' 렌털 △유진로봇-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 오메가' △티엔에스모터스-접이식 전기자전거 '모아'

빌려 쓸 수 있다. 그는 "취미로 피아노를 배우려는 성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제품"이라고 말했다.  
◆중국 진출로 제2 도약  
다이나톤은 중국시장 진출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다이나톤은 중국 공장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하고 있다. 중국 기업과 합작법을 설립해 다이나톤이라는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 전후로 수출이 연 20%씩 늘면서 회사 규모가 급성장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성장세가 주춤했다"며 "추진 중인 중국 회사와의 합작법인 설립이 마무리되면 130억원인 연 매출이 두 배인 260억원가량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 공정위 분쟁조정 지원에 中소 '골병'

서울사무소 최대 1년여 소요  
직원 1인당 60여건씩 쌓여

지난달 공정자동화기기를 제작하는 다우테크 사무실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 거래하는 업체에 대금을 치르지 못해 붙은 압류 딱지다. 다우테크는 지난 3월 한 업체에 자동화기기를 공급했으나 아직 대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 수급이 제대로 안 돼 돈을 제때 치르지 못한 것이다. 임금을 주지 못해 직원들은 모두 그만뒀다.

다우테크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민원을 냈지만 조정에 실패했고 이 건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로 넘어갔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사무소는 분쟁 처리가 더더 '합충차사'다. 정현명 대표는 "기회 손실비용 등까지 합치면 18억원을 손해 본 셈"이라며 "이대로 세월을 보내다간 회사가 망한다"고 호소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에는 다우테크 같은 하도급 분쟁사건이 500건 넘게 쌓여 있다.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규칙'에 따르면 하도급 분쟁은 6개월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무처

장 승인에 따라 처리 가능한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분쟁 사안이 복잡하면 조정에 6개월에서 1년여가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하도급 분쟁을 받고 있는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 직원은 8명. 지난해 13명에서 대폭 줄었다. 1인당 60개가 넘는 분쟁 사건을 맡은 셈이다. 분쟁은 매년 늘고 있지만 직원들이 근무를 꺼리다 보니 배태량 직원들도 자꾸 빠져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사무소는 전국에 있는 공정위 지소 중에서도 조정 기간이 유독 오래 걸리는 곳으로 악명이 높다. 서울사무소가 관할하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중소기업은 65만 개가 넘는다. 전국 1400만 개 중소기업 중 절반가량이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1309건 중 614건을 서울사무소가 처리했다. 부산(221건) 광주(170건) 등에 비해 세 배 이상 많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공정위에서 하도급 분쟁을 조정하는 기간에 업체가 망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공정위 각 지역집단국을 신설하는 등 대기업 쪽 인력은 늘리면서 중소기업에는 관심을 덜 두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중소기업 수출 상담회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수출상담회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수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해주는 상담센터도 운영된다. 이 행사는 15일까지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대 안센, 미국 특허 소송 취하

다국적 제약회사 안센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에서 출시한 렌플렉시스 판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안센은 지난 11월 미국 뉴저지지방법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레미케이드(성분명 인플릭시맙)의 배지 특허 두 건, 정제 특허 한 건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레미케이드는 자가면역 질환인 류머티즘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에 쓰이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안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의 개발사로 지난 5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특허 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 공개 매각 밝힌 후 '내우외환' 시달리는 CJ헬스케어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CJ헬스케어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일 CJ그룹이 계약계열사 CJ헬스케어의 공개 매각 의사를 밝힌 뒤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계약업계에 따르면 CJ헬스케어는 최근 내부조직 정비에 들어갔다. 갑작스러운 매각 발표 후 직원들의 동요를 막고 뒤숭숭한 사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 매각 이후 임직원의 거주와 관련한 설이 난무하면서 이직을 고려하는 직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헬스케어 한 직원은 "인수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매각 이후 고용 안정성에 불안감을 느끼는 직원이 많다"며 "그룹 입사자나 경력직 등 소속과 채용 방식

정리해고설 등 분위기 뒤숭숭 그룹공채-경력직 내부 갈등도 거래하던 일부 병원-약국들 타사 제품으로 교체 사례도

식에 따라 치우가 다를 것이라ں 소문이 나돌면서 내부 갈등도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CJ헬스케어의 영업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일부 병원과 약국에서 CJ헬스케어 의약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CJ헬스케어 거래처들은 회사가 매각된 이후 다른 브랜드로 바뀌거나 제품 공급이 끊길 경우 재고 관리에 문제가 생

길지 모른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의약품과 복제약 비중이 높은 CJ헬스케어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CJ헬스케어는 올 3분기 매출 1353억 원, 영업이익 196억원을 올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 41% 증가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고수의 전문의약품 제품군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난 덕분이다. 그러나 병원 영업에 타격이 우려되면서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연류성식도염 치료신약 테고프라잔의 출시 준비도 중단됐다. CJ헬스케어 관계자는 "매각이든 상장이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과 기존 연구 개발은 예정대로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 중소기업 경기동행지수 만든다

2019년부터 매월 발표

중소기업의 경기 동향을 알 수 있는 '중소기업 동행종합지수'가 2019년부터 매월 발표된다. 김동열 선임 중소기업연구원장(사진)은 14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기지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기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중소기업 동행종합지수 산출을 위해 통계청과 이달 안에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행종합지수는 제조업 가동률지수,



생산자 출하지수, 도소매 판매액지수, 비내구 소비재 출하지수, 노동 투입량 등으로 구성된다. 김 원장은 "약 60명 인 연구 인력에서 10여 명이 증원에 통계 관련 부서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연말에 '2018 국정과제 준비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5대 국정과제와 세부 실천과제의 연구 방향을 확정하는 자리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 M&A(기업매도,인수)를 원 하십니까?

※ 한국M&A거래소(KMX)는 국내 "최다 M&A정보 보유조직"으로 귀사의 M&A를 지원합니다

★성장형M&A 환영 (일명 선진국형 M&A) ⇒ 즉 잘나가는 기업을 매각 할 경우 더 유리한 조건, 더 좋은 가격으로 매각

☞ KMX가 개최한 「2017중소기업 M&A설명회」에서 M&A상담 장면 (행사현장에서 2시간동안 약 30개회사와 M&A상담)



☞ "KMX"는 내부매칭으로 다른 M&A기관을 통하지 않고 수행하기 때문에 비밀유지, 보안유지가 탁월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M&A상담 환영]

- ①기업인수를 통해 ⇒ 경쟁력제고, 융합시너지창출, 신성장동력확보, IPO(주식상장), 신사업진출, 인수 후 기업가치제고
- ②기업매도(Exit)를 통해 ⇒ 창업자보상 및 투자금회수, 투자수익실현, 업종전환, 사업리스크 제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 ③가업승계형 M&A(기업매도) ⇒ 물려줄 자녀가 없는 경우 매각, 물려줄 자녀가 있지만 상속세/증여세 등 세금문제로 매각

지금 [www.kmx.kr](http://www.kmx.kr) 에 들어 오시면 귀하가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M&A신청방법 : [www.kmx.kr](http://www.kmx.kr) 에서 【맞춤식상담】 【사전상담】 【직접 M&A매도/인수 등록】 Tel. 02)783-7500

★M&A는 나와 잘 맞는 상대방을 찾을 때 성공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M&A거래소」의 장점입니다

